



‘새롭게 떠오르는 대륙’

한 순 사장이 들려주는
중국 여행기(下)

우리 일행은 중국방문 4일째 우리 민족(韓族)이 경영하는 「산립반점」을 찾아갔다.

북경시 화평문 난신10호에 위치한 이 식당은 최대 신씨가 경영하고 있었다.

이 식당은 1,2층에 약 50평 크기로 주인과 종업원 모두가 한족으로 과거 중국사람이 경영하다가 망해 최사장이 인수하여 현재 외국인만 해도 하루 1천여 명이 찾는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신립반점을 찾았을 때 마침 최사장 내외는 미국 LA에서 친구가 찾아와 관광안내차 식당에 없었고 흑룡강성에 사는 처남 엄명학씨가 있었다. 엄씨는 흑룡강성에서 우리말 신문 「조선일보」 사진기자로 근무하는데 1주일 휴가차 왔다고 했다.

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8시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창 술손님으로 분주할 시간인데 이곳은 끝나서 청소할 시간이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사실을 안 이들은 올림픽과 한국의 발전상을 묻는 등 매우 큰 관심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식당 방명록에는 우리나라 농축산업계, 섬유, 전자업계 인사들이 다녀 가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쇠고기 1인분(5백g)에 10원4전(한화 약 2천원)을 주고 15인분과 두강주를 시켜먹었다.

두강주는 삼국시대때 조조가 즐겨마셨던 술로 이 식당에선 최고의 고급술로 이 술을 마시면 근심걱정이 없다는 유례로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술이라고 했다.

처남 엄씨는 『보통 1일 외국인을 포함 1천여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 하루매상이 3천원(한화 6만원)을 올려 장사가 제법 잘되는 편』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음식은 기름에 튀기거나 기름으로 태워서 나와 외국손님 입맛에는 별로 맞지않아 우리 식당을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씨는 『1주일 휴가기간을 이 식당에서 일하



는 리명화(20세)씨와 지난 8월에 약혼하여 보고 싶어서 만나려고 왔다』고 밝히고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일행은 준비해간 올림픽 기념 뺏지, 호돌이 T셔츠, 스타킹 등을 선물하고 불고기, 냉면, 김치 등을 맛있게 먹고 왔다.

9월 11일 심포지움의 행사로 일부중 관광스케줄에 심삼령과 만리장성이 있어 관광길에 올랐다. 심삼령은 중국 황제들의 무덤으로 지하 20m 밑에 사체와 유품을 보관하고 있어 그야말로 대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길림성에서 온 한족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모두가 한복 차림으로 관광하고 있었다. 한복을 입는 이유는 한족의 전통적 풍습과 한족이 잘



살고 있어 한족의 긍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들이 매우 부러워하여 한복을 입고 다닌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꿈에 그리던 만리장성에 도착했다. 만리장성은 북경시에서 서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웅대함은 말로서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만리장성을 일컬어 중국의 동맥이라고 표현한다.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때 만리장성만이 보인다고 하여 만리장성에는 관광객이 홍수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70대 30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만리장성을 관광하고 호텔에 온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양귀비」 연극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미녀를 가리켜 중국의 '양귀비'라고 하듯이 중국 내에서는 양귀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다른 나라나 북경 시내에 있는 2.7극장에서 한달에 한두 번하는 북경시립가무단의 '양귀비'에 대한 연극을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이 연극의 내용은 중국의 명나라 황제가 꿈속에서 미녀를 만나 소위 요즘말로 데이트를 하다 꿈에서 깨어나 그 미녀를 못잊어 이때부터 황제가 몸살이 날 정도였다는 것이다.

대신들이 이를 알고 중국 서쪽에 있는 소나라 미녀를 수없이 보여주었으나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고 황제는 더욱 심란한 생활을 했다.

어느날 대신 가운데 양복충이 자기동생 지금에 양귀비를 데리고 황제에게 보여주었다니 꿈속에 본 미녀와 똑같다며 정색을 하고 반긴다.

비로소 황제가 양귀비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안록산과 양귀비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진다. 이때 안록산이 황제에게 양귀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배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황제는 양귀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결국 안록산이 원나라를 만들어 10년동안 군대를 훈련시켜 쳐들어 온다. 이때 황제는 도망가면서 양귀비 오빠 양복충을 죽이라고 시키고 양귀비와 도망가지만 양귀비는 끝내 목을매 자살하고 만다. 4막으로 된 이 연극은 매우 장엄하면서도 무대장치와 조명 등이 세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매우 훌륭했다.

이 연극을 본 모든 외국인들은 「넘버원」을 외치며 연극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일행은 중국체류 5일째 양원평 중국축목수의학회 부비서실장겸 축목수의과학기술공사 부국장 안내로 다국적 기업인 북경시농공상연합총공사를 방문했다.

북경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이 공사는 문화대혁명 이전에 원북경시영농장관리국에서 현총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공사는 시일개함유다종산업(是一個含有多種產業), 다종경제성분적대형연합기업(多種經濟成分的大型聯合企業)으로 조직됐다. 하부에 16개 국영농장, 11개 전업공사, 1개 해남분공사, 3개 연구소, 1개 직업공과대학을 두고 있다. 현재 종사자가 20만명으로 1987년 총수입이 20억원(한화 4천억원)을 달성하고 1990년에는 50% 증가한 3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총공사의 총면적이 1백20만평의 토지에 농경지가

68만평, 과수원이 5만4천평, 양어수면 2만7천평에 달한다.

특히 이 총공사는 식품, 화공, 의약, 경공업, 철재, 건축, 공예미술등 1천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내 최대 공사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총공사내에는 1백34개의 목장과 1개의 우유연구소, 종모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4만두의 젖소에서 연간 1억3천만kg의 원유를 생산한다.

또 젖소개량을 위해 종모우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의 우수한 정액도 수입하여 젖소 생산성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그날 그날 우유처리장을 통해 시유, 버터, 치즈 등을 생산, 북경 시내 호텔, 백화점 등에 납품한다.

공사의 밭농사는 46만평에 소맥, 옥수수를 재배 연간 총 2억3천kg을 생산하고 채소밭은 4만평에서 배추, 오이, 도마도 등 수확량이 2억kg에 달한다.

이밖에도 과수원 5만4천평에서 복숭아, 배, 사과 등 과일과 국화, 장미 등 꽃을 2천8백만kg을 생산하고 있다.

이 총공사의 농업기자재는 농림부에서 직접 관장하여 비료, 비닐, 농약 등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잇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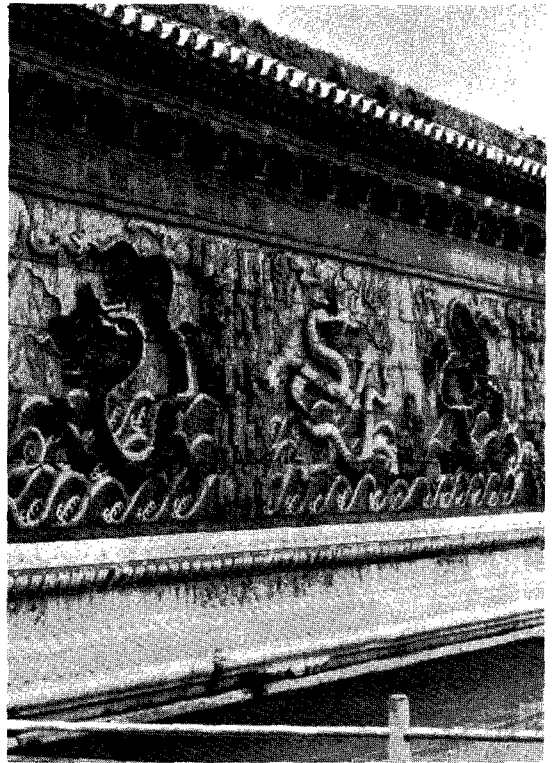
총공사의 양식업은 젖소를 제외하고 닭, 돼지, 오이, 담수어, 애완용 새 등을 사육·양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닭은 모두 산란계로 1백60만수와 오리는 1백53만수이고 돼지는 비육돈 30만두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담수어는 20만평에서 5백50만kg을 생산, 북경시에 대부분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의약품, 식품, 주류, 경공업, 화공약품 등을 생산하여 중국내 최대 규모의 공사로 군림하고 있다.

중국방문 8일째(9월15일) 우리 일행은 북경에서 중국민항기를 타고 1시간 40여분 소요되는 상해시



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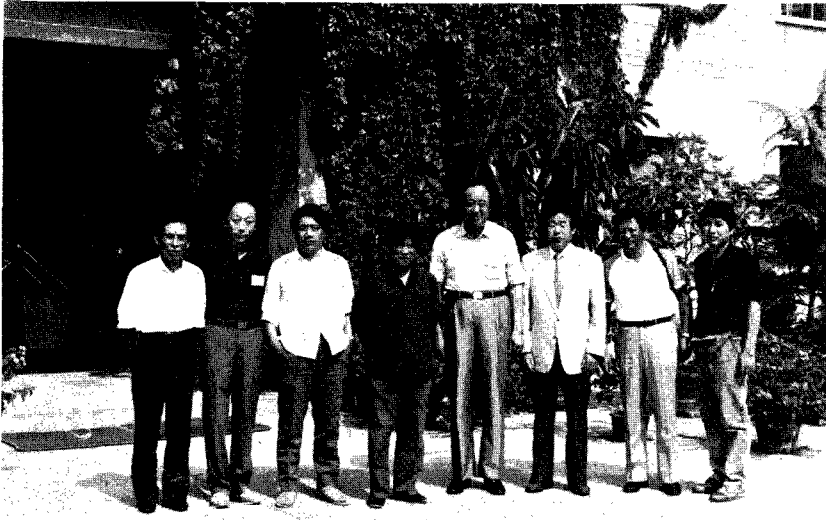
상해시는 일찌기 개방된 상업도시로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1천3백만명의 세계 10대 도시의 하나이다.

중국 축산학회 상해지부의 안내로 상해시 관광을 하고 다음날 16일 청포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청포과학연구소는 상해시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현(군)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인민정부이다.

청포현은 4개 읍과 20개 면으로 총인구가 44만4천명에 농업인구는 약 38만명이 벼농사, 오리 농장, 담수양식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87년 총식량생산은 25.35만톤, 담수어 2.18만톤, 육용오리 1천만수 등 채소, 면화를 생산, 상해시에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농축산업계,
섬유, 전자업계 인사들이
다녀가서 일찌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청포축산학회 임원들의 안내로 오리 전문 사육농장을 찾아갔다.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오리농가를 갖고 있는 청포현은 상해시 총 공급량의 50%의 시장채어와 일본,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는 브로일러와 같이 고기를 목적으로 개량하여 7주에 1.5~2kg의 체중에 도달한다.

특히 이 오리는 가슴살이 두껍고 다리에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로스구이, 가공, 찜 등으로 이용된다. 또 오리털은 질이 좋아 오리털 잠바, 침대베드를 만들어 유럽 북미 등지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다.

더구나 상해시 축재때는 유일하게 청포현은 오리를 앞세우고 갈 정도로 오리의 경제적 수입원이 큰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청포현에서 사육되고 있는 오리는 75%가 갈색계이고 25%가 베이킹(흰색) 오리를 사육하며 1마리당 수입은 8~10원으로 1가구당 1천5백수를 사육, 연간 호당 5천원의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특히 청포현 오리농장은 천연적·지리적 조건이

오리를 사육하기에는 안성맞춤으로 곳곳이 수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오리농장은 담수어를 겸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북경은 이와는 달리 인공적으로 수로나 저수지를 만들어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약사용을 하지 않았던 중국의 농업이 이제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농약사용을 한다면 오리사육과 담수어 양식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청포현 내에는 아랍과 합작한 도계장과 오리털 가공공장이 있다. 이 공장은 오리의 도살부터 털을 가공까지 하는 대단위 공장으로 1일 1만수의 오리를 도살한다.

또한 오리털공장은 건조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만들고 있어 명실상부한 오리왕국임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우리 일행은 상해시 청포현의 대규모 오리농장 등을 둘러보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특히 17일 오전에 우리가 투숙했던 호텔에서 '88서울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을 보았다. 상해시에서 3시 비행기로 동경을 경유, 18일 귀국했다.

양기태